hauzen 삼성 하우젠 K리그 2008

부활하는 그들

부산 안정환 '눈에 띄네'

잊혀진 천재들이 2008 K-리그 초반 화려한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올해 K-리그가 8일 개막전을 치른 가운데 안정환(32·부산 아이파크·사진)과 고종수(30·대전 시티즌)는 단연 돋보였다.

이들은 이동국(30.미들즈브러)과 함께 '트로이카'로 불리며 1990년대 말 K-리그 중흥을 이뤘던 최고 스타 출신.

하지만 두 스타 모두 심한 부침을 겪었다. 2006년 독일월드컵 이후 유럽 빅리그를 노크하다 실패한 안정환은 6개월을 쉰 뒤 수원 삼성에 복귀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대표에서 탈락한 이후 방황을 시작해 여러 팀을 전전하다 2006년에는 아예 축구계를 떠났던 고종수도 작년에 대전에 입단하며 재기를 노렸다.

전북과 개막전서 동점골 도움

황선홍 감독 "동료들에게 귀감"

대전 플레이메이커 고종수

패스·프리킥 상대 문전 위협

올해 K-리그가 열리자 이 둘은 펄펄 날기 시작했다. 재기를 위해 절치부심하며 동계훈련 기간 비지땀을 흘린 결과였다.

옛 기량이 완벽히 되살아나지는 않았지만 노련함이 가미된 데다 누구보다 성실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면서 동료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수원을 나와 친정팀 부산으로 둥지를 옮긴 안정환은 전북 현대와 개막전에 선발 출전했고 풀타임을 뛰며 맹활약했다.

0-1로 뒤지던 전반 종료 직전 프리킥 슈팅으로 동점골을 유도해내기도 했다. 당시 수비벽을 뚫고 날아간 안정환의 대포알 슈팅은 전북 수문장 권순태의 손에 맞고 튕겨져 나왔고, 이를 한정화가 달려들며 골그물에 꽂아넣었다.

안정환은 "아직 컨디션이 80% 정도 밖에 안 되고 체력을 많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황선홍 감독은 "안정환의 플레이에 100% 만족한다. 헌신적인 플레이로 동료에게 귀감이 된다. 경험이 많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며 만족해했다.

고종수도 친정팀 수원과 개막전에서 0-2로 완패하기는 했지만 한 수 아래의 전력으로 평가받는 대전의 플레이메이커로 활발히 뛰어다니며 비교적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데 앞장섰다.

특히 전반 23분 오른쪽 공격수 김용태에게 찔러준 패스는 일품이었다.

김용태는 자신의 발 앞에 뚝 떨어지는 긴 로빙패스를 이어받아 수원 수문장 이운재와 1대1 찬스를 만들어 슈팅을 날렸고 아쉽게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말았다.

후반 13분 오른쪽 측면에서 날린 왼발 프리킥 크로스도 상당히 위협적이었다. 볼은 문전 앞에 기다리던 수비수 김형일에게 정확히 떨어졌고 왼발 슈팅이 이운재의 가슴으로 향하지만 않았다면 골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호 대전 감독은 "(고)종수가 경기를 치를 수록 몸이 좋아지고 있다. 아쉬운 건 종수의 플레이를 받쳐줄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시즌 최다 득점 내가 바꾸겠다"

'07-'08 NH농협 V LEAGUE

삼성화재 안젤코 716 득점

최다기록 717득점에 1점차

공격종합성공률·서브 1위

프로배구 삼성화재 외국인 선수 안젤코 추크(25)가 시즌 최다득점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8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상무전에서 24득점을 올린 안젤코는 이번 시즌 28경기에서 716득점을 사냥해 지난해 레안드로가 세웠던 시즌 최다득점 기록(717점)에 바짝 다가섰다.

팀 전체 공격의 37.8%를 혼자 도맡고 있는 안젤코는 프로배구 V-리그에 처음 선을 보인 올해 다른 외국인 선수를 압도하는 활약으로 한국 무대를 완전 정복했다.

안젤코는 득점과 함께 공격종합 성공률(52.3%)과 서브(세트당 0.34개)에서도 전체 1위에 올랐고 블로킹에서는 세트당 0.70개로 다른 팀 센터들을 제치고 당당히 2위에 이름을 걸어놓고 있다.

올 시즌 트리플 크라운(서브에이스.후위공격.블로킹 각 3개이상)을 3차례에 걸쳐 작성해 시즌 최다 트리플 크라운 기록도 갈아치웠다.

2월3일 현대캐피탈전 3세트에서는 후위공격 4개와 서브에이스, 블로킹을 각각 3개씩 기록해 '한 세트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안젤코는 득점에서 레안드로의 기록에 다가섰을 뿐 아니라 조직력을 중심으로 한 삼성화재의 팀 칼라에도 완전히 적응, 지난해 '괴물 용병' 레안드로의 활약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화재는 이같은 안젤코의 활약을 앞세워 올해 25승4패로 정규리그 1위 독주 체제를 이어가면서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노리는 전력을 갖췄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올해 다른 외국인 선수에 비해 적었던 몸값(10만달러)를 올려 내년 시즌 재계약도 검토하고 있다.

최경주, 발렌타인챔피언십 출전

'탱크' 최경주(오른쪽)와 아일랜드의 파드리그 해링턴이 10일 유럽프로골프투어 발렌타인챔피언십이 열릴 예정인 제주 핀크스골프장에서 드라이버샷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 세계 5위 '역대 최고 랭킹'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의 세계골프랭킹이 역대 최고인 5위까지 치솟았다.

최경주는 10일 발표된 주간 골프랭킹에서 5.75점을 받아 지난 주 6위에서 한계단 높은 5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승을 올리며 세계 10위 안에 들었던 최경주는 올해도 소니오픈에서 우승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다.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부동의 1위를 지켰고 필 미켈슨(미국), 어니 엘스(남아공), 스티브 스트리커(미국)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6월 월드컵 남북 축구 서울경기 인공기 허용"

정몽준 축구협회장 밝혀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회장이 6월22일 예정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3차 예선 6차전 남북전 서울 원정경기 때 인공기 게양과 북한 국가연주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정몽준 축구협회장은 10일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치러진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런던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친선축구대회에 참석해 "비록 이번 북한 원정전이 열리지 못하게 됐지만 6월22일 예정된 북한의 서울 원정 때는 국제축구연맹(FIFA) 원칙에 따라 인공기와 국가를 연주하는 게 좋을 듯 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3차 예선이지만 남북이 동시에 최종예선에 올라갈 경우 북한에서 또 한번 경기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북한이 이번처럼 하지 말고 애국가를 연주하고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6일 북한 원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선 "이라크와 같은 전시 상황에 놓인 국가에서는 경기를 할 수 없지만 북한의 경우 FIFA가 특수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내린 결정인 것 같다"며 "축구협회도 FIFA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 회장은 FIFA 회장 도전에 대해 "FIFA 부회장으로 14년간 일하면서 세계 축구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스스로 평가한다"며 "FIFA 회장은 욕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에게 역할이 주어진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스포츠중계

11일(화)

▲테니스 슈퍼매치 〈샘프라스 : 페더러〉(10 : 10·SBS스포츠)

▲프로야구 시범경기 〈삼성 : 기아〉(13 : 00·MBCESPN·SBS스포츠)

▲여자 프로농구 〈KB국민은행 : 신한은행〉(16 : 50·SBS스포츠)

▲V리그 남자부 〈LIG손보 : 상무〉(18 : 30·KBSN SPORTS)

▲프로농구 〈LG : 오리온스〉(18 : 50·Xports·SBS스포츠)

12일(수)

▲07/08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인터밀란 : 리버풀〉(04 : 30·MBCESPN)